

(사)한국예절문화원

화를 다스리는 치유의 행다법

교육자료

2021-01-11



목차

1. 행다법

1. 행다법

●사전준비



1. 먼저 물을 끓이고 물이 끓는 동안 찻상 위에 다포를 깔고 다구를 배열한다.
2. 차통 안에 차를 담는다.
3. 상보를 덮는다.
4. 탕관과 퇴수기를 오른쪽에 세로로 나란히 놓는다.
5. 물이 끓으면 탕관에 붓는다.
6. 모든 것이 준비되면 공수하고 조용히 앉아 차를 우릴 마음자세를 가다듬는다

1. 행다법

●차 우리기



- 1) 다례는 예(禮)로 시작된다
- 2) 상보를 개어 놓는다
- 3-1) 예열한다- 탕관에서 숙우로
- 3-2) 예열한다- 숙우에서 다관으로
- 3-3) 예열한다- 다관에서 찻잔으로

1. 손님이 방안에 착석하면 먼저 큰절을 하고, 차를 우릴 준비를 마치면 자리에 앉아 가볍게 절을 한다.
2. 상보를 접어 퇴수기 뒤쪽에 놓는다. (주의: 상보 위의 먼지가 다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무릎 위에서 접는다.)
3. 탕관의 물을 먼저 숙우에 붓고, 숙우의 물을 다관에, 다관의 물을 다시 찻잔에 따라내어 숙우, 다관, 찻잔을 모두 예열한다. 이 때 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차수건을 왼손에 든다. 다관의 물을 찻잔에 따를 때에는 다관의 뚜껑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수건으로 다관 뚜껑을 가볍게 누른다.

* 주의: 먼저 찻잔의 70% 용량 정도의 물을 측정하고 5잔의 물의 양만을 숙우에 따른다. 물의 양이 많아 찻잔에 다 붓지 못하여 다관에 물이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1. 행다법



- 4) 탕관의 물을 숙우에 부어 식힌다
- 5) 차를 다관에 넣는다
- 6) 숙우의 식은 물을 다관에 붓는다
- 7) 예열한 물을 퇴수기에 버린다

4. 찻잔이 예열될 동안 탕관의 뜨거운 물을 숙우에 따라 녹차를 우려기 적당한 온도 60~80℃로 식힌다.
5. 차숟가락을 이용해 차통의 차를 넣는다.
(주의: 보통 5인용 다관을 사용할 경우 약 6g정도(약 3숟가락)가 적당하다.)
6. 숙우에 식혀놓은 물을 다관에 붓는다.
7. 다관의 차가 우려날 동안 찻잔의 물을 1번 잔부터 5번 잔까지 차례차례 퇴수기에 버린다.

* 주의: 먼저 차의 맛을 가장 잘 우려낼 수 있는 시간을 습득하고, 많은 실습을 통해 개인의 호흡과 리듬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 8) 다관 안에서 차가 잘 섞이도록 시계방향으로 돌려준다
- 9) 찻잔에 차를 따른다
- 10-1) 차탁에 받쳐 차를 낸다
- 10-2) 1번부터 4번까지가 손님의 차농도 조절에 힘써야 한다

8. 다관을 왼손바닥에 올려놓고 온도를 감지한 다음 차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린다.
9. 5번 잔에 차를 살짝 따라보고 농도가 적당한지 살핀 후 1번 잔부터 따른다. 처음에는 각 잔의 약 4부까지 따르고, 5번 잔부터 다시 시작하여 각 잔의 약 7부까지 차를 따라 각 잔의 차의 농도가 일치하도록 한다. (5-1-2-3-4-5-4-3-2-1)
10. 1번 잔부터 4번 잔까지의 차를 차탁에 받쳐 손님께 드린다.



- 11) 손님에게 차를 권한다
- 12) 차는 세모금으로 나누어 마신다
- 13-1) 두번째 잔을 우린다
- 13-2) 두번째 잔의 차를 권한다

- 11. 5번 잔을 들어 무릎에 놓고 손님에게 차를 권한다.
- 12. 차를 마시며 가볍게 담소를 나눈다. 찻잔을 잡을 때에는 왼손으로 찻잔 바닥을 받치고, 오른손은 찻잔을 움켜잡지 말고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감싸 쥐도록 한다. 차를 마실 때에는 먼저 향기를 맡고 찻물의 색을 본 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3모금에 나누어 마신다.
- 13. 2번째 차를 우려낸다. 2번째 차는 다관에서 우려낸 차를 숙우에 따라 숙우를 손님에게 낸다. 손님은 숙우의 차를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신다.
- 14. 상황을 판단하여 3번째 차를 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3번째 차는 다관에 물을 직접 부어 다관을 직접 손님에게 낸다. 손님은 다관의 차를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신다.



- 15-1) “물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리한다
- 15-2) 상보를 덮는다
- 15-3) 마지막 인사로 정갈하게 마무리한다

15. 차를 모두 마시면 “물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인사한 뒤 찻자리를 정리한다.

*주의: 다도는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아야 한다. 정리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 원래대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마무리 한다.